

utopia

SCENARIO

#UTOPIA

P#1 [밖 / 은파리 / 낮]

스코프 조준점에는 멀리 있는 깡통캔이 보인다.
조준하고 있는 노아. 옆에서 망원경으로 보고있는 정한.
숨을 고르게 쉬고 있는 노아는 정한의 다음 지시까지 기다리고 있다.

정한 천천히.. 알려준대로만 해.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에 있는 너의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당겨.

고르게 쉬고 있던 노아는 정한의 말에 호흡을 멈춘다.
흔들리던 스코프 조준점은 서서히 멈춰 깡통의 정중앙을 조준한다.
망원경으로 보고있던 정한은 노아에게 지시한다.

정한 썩.

서서히 당겨지는 방아쇠.

다시보여지는 스코프 조준점엔 방독면을 쓰고 총을 들고 있는 두명의 무리가 보인다.

들리는 두발의 총성.

[INSERT]

아무것도 없는 초원.
바람에 휘날리는 앙상한 나뭇가지.
소름끼칠 정도로 스산하다.

P#2 [밖 / 은파리 / 낮]

연기가 나오는 총구.
두발의 총을 쏘서 무리들을 죽이고 서서히 총을 내리는 노아.
거친숨을 내뿔으며 고개를 떨구며 눈을 질끈 감는다.

#UTOPIA

P#3 [밖 / 은파리 / 낮]

방사능 표지판이 있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
방독면을 쓴 노아는 괜히 쳐다보더니, 철조망을 열고 들어간다.
노아의 시계에는 방사능 위험수치가 표시된다.
무시하고 방사능 구역으로 들어가는 노아.

P#4 [밖 / 은파리 / 낮]

방독면을 쓴 채 무언가를 땅에 설치하기 시작하는 노아.
그녀의 주변엔 무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계속해서 그녀의 시계에서 방사능 알람소리가 들려온다.
땅에 박힌 장치를 시계의 몇번의 터치로 통해 작동시키는 노아.
기기가 작동하더니 점점 방사능 알람음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윽고 멈춘 알람음.

노아는 시계를 확인하고 방사능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방독면을 벗는다.
하늘을 쳐다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셔보는 노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한번 문지르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시체들을 살펴본다.
시체를 뒤집어 보니 오른쪽 팔뚝 부분에 보이는 '유토피아 마크'
이윽고 노아는 총을 고쳐매고선 어디론가 떠난다.

[인트로 인서트]

광활한 초원을 걷는 노아.
폐기차길을 걷는 노아.
노아 등에 매어있는 절그럭 거리는 총.
넓은 바다를 보는 노아.
방독면을 쓰고 걸어가는 노아.

[TITLE UTOPIA]

#UTOPIA

S#1 [연구실-식탁 / 1호관 / 밥]

냉장고 문을 여는 노아.
뒤적거리다가 진공팩에 담겨있는 물을 꺼내든다.
그리고 별걱별걱 마시기 시작하는 노아.

물을 마시는 노아의 뒤로 정한이 커피머신을 향해 걸어간다.
진공팩에 담겨있던 원두를 갈기 시작하는 정한. 노아에게 묻는다.

정한 오늘은 몇명?

노아는 물을 마시면서 정한을 한번 쓱 쳐다보고선, 진공팩을 내려놓는다.
입가에 묻은 물을 닦으며 말하는 노아.

노아 두명이요.

말을하며 식탁에 앉는 노아.
노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한.
정한은 원두가 다 갈렸는지 끓였던 뜨거운물을 거름종이에 뿌린다.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 커피머신.

노아는 식탁에 앉아 본인의 목에 있던 스카프를 풀어제친다.
뻘뻘 노아를 쳐다보는 정한.
노아는 스카프를 풀다가 정한을 쳐다본다.
정한은 커피를 물내리는 것을 보다가 노아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노아와 커피머신을
변갈아 쳐다보고선 노아에게 묻는다.

정한 커피?

노아는 그런 정한의 모습을 보고선 피식 웃고 고개를 젓는다.
정한은 옆에 있던 컵을 들어 내려진 커피를 자신의 컵에 담는다.

커피를 들고 노아가 앉아있는 식탁에 앉는 정한.
김이 모락모락나는 커피를 한모금 하는 정한은 입만 댄다.
뜨거운지 마시려다 말고 잔을 내려놓는 정한.

정한 할만하냐.

노아는 정한을 뻘뻘 쳐다본다.
이윽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 노아.

노아 아니요. 그게 어떻게 익숙해지겠어요.

정한 노아의 말에 웃으며 대답한다.

#UTOPIA

정한 그렇지. 그래도 장치는 잘 작동되나봐?
노아 ...네. 방사능 수치는 금방 줄어들더라고요.
정한 그럼. 누가만든건데.

커피를 한모금 마시는 정한.

정한 근데 야.
노아 네?
정한 가서 씻어 입마. 냄새나.

정한은 그렇게 말하고 커피를 입에 가져다 대며 자리에 일어나버린다.
쓰다며 궁시령 대는 정한.
노아는 표정을 찌그리트리면서 자신의 몸냄새를 쿵쿵 거리며 맡는다.

S#2 [연구실-육조 / 1호관 / 밤]

육조 안에 얼굴을 담고 있는 노아.
노아의 숨에서 나오는 기포가 하나 둘씩 생겼다가 터진다.
시간이 지나고 물 밖으로 나오는 노아.
거친 숨을 내뿜으며 젖은 머리를 넘기는 노아.

노아 하...

머리에서 물이 푹푹 떨어지고, 숨을 고르는 노아.
고개를 뒤로 젖히며 서서히 눈을 감는다.
육실의 창문에는 흰색 빛이 들어오고 있고, 그 빛은 노아를 감싸고 있다.

S#3 [연구실-칠판 / 1호관 / 밤]

노아는 아크릴칠판에 붙여져 있는 지도에 표식을 해두었다.
지도는 큰 반경으로 붉게 칠해져 있다.
빨간색 줄을 핀에 걸어 붉게 칠해져 있는 가운데 부분에 꽂아 두는 노아.
책상에는 여러 장소가 찍힌 사진이 걸려있고, X표시가 되어있는 사진과 멀쩡한 사진이
무수히 보였으며, 각종 방사능 연구 자료가 눈에 띄게 붙여져 있었다.
자신이 작업해둔 아크릴 칠판을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물어 뜯으며 뻘뻘 쳐다보는 노아.

S#4 [연구실-식탁 / 1호관 / 밥]

하얀 그릇. 진공팩이 털어지고 그 안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조림이 나온다.
조금씩 퍼먹는 노아. 입맛이 없는 듯 깨작깨작 먹는 모습.
연구실 식탁에 혼자 있는 노아. 적막하고 조용하게 노아의 수저소리만 들려온다.

S#5 [연구실-테이블 / 1호관 / 밥]

거실에 앉아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는 노아.
연구 자료는 갖가지 지도와, 통계자료, 방사능 수치자료, 핵전쟁 기록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씩 들춰보며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노아.

이때 자료 중에 핵전쟁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적혀있는 신문을 발견한다.
조심스레 자료뭉치에서 신문을 꺼내드는 노아.
신문에는 20년 전 핵전쟁에 관련된 기사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조금씩 입으로 뜯기 시작하며 기사를 보는 노아.

'반인륜적 핵전쟁'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2023, 다가온 종말'

등 위협적인 문구로 가득한 기사.
노아는 기사를 빨리 쳐다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접어버리고
머리가 아픈 듯 고개를 젓히고 눈가를 비비며 작은 한숨을 뱉는다.

이후 정한이 노아가 앉아있는 곳 앞에 앉는다.
정한의 손엔 커피가 들려있다. 곧, 정한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는다.
아무 말 없이 노아와 같이 스크린을 빨리 쳐다보는 정한.
노아에게 말한다.

정한 벌써 몇 년 전이지?

노아는 정한을 쳐다본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노아.

노아 20년 전이네요.

정한 아.. 꽤 오래됐네.

노아 깨어난지 얼마 안돼서.. 별로 오래 지난것 같진 않네요.

정한 부작용은 없고?

#UTOPIA

노아 처음보단 괜찮아 졌어요. 아직 속이 메스껍긴 하지만.

노아의 말에 미소 짓는 정한.
커피를 한모금 마신 후 말한다.

정한 일은 잘 되가?

노아는 스크린 창문 쪽을 바라본다.
스크린에는 어두운 밤의 빛을 내는 아름다운 자연이 보여진다.
푸른 자연은 노아가 밖에서 보는 느낌과 매우 달라보인다.
이런 스크린을 뻘히 쳐다보는 노아.

노아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노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한.
정한도 노아와 같이 스크린을 보며 말한다.

정한 후회되진 않고?

노아 음... 글썄요.

정한은 노아를 한번 쳐다본다.
뻘히 스크린만 쳐다보는 노아.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리는 정한.

정한 전부 다시 볼 수 없을텐데?

노아 ..큰 걸 위해선 작은 것들이 희생해야 한다면서요.

정한 누가 그래?

노아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잖아요.

노아를 쳐다보는 정한.

정한 그래도 희생되는 것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건 없어.

스크린을 쳐다보는 정한과 노아.

정한 네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한.
혼자 남아 스크린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노아.

S#6 [연구실-침실 / 1호관 / 아침]

서서히 눈을 뜨는 노아.
이불을 꼭 둘러메고 하염없이 허공을 본다.
이윽고 스크린 쪽을 쳐다보는 노아.
창에서는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고,
스크린에선 푸른 자연의 아침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S#7 [황무지 / 새만금 / 낮]

파여져 있는 땅, 방독면을 쓰고 거친 숨을 내쉬는 노아는 그 속에 장치를 넣는다.
시계를 작동하여 장치를 작동 시키는 노아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장치.
노아의 시계에 방사능 수치가 나타나는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요란하게 울리던 방사능 표시음도 점차 줄어들어 사라졌다.
답답했던지 벗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 마신다. 마시는 노아.
추운 날씨지만 땀이 맺혀 흐르고 있다.

S#8 [황무지 / 은파리 / 낮]

노아는 깡통에 흙을 주워 담는다.
흙이 가득 찬 깡통 위에 식물을 담은 노아.
완성된 간이 화분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는 노아.

S#9 [연구실-화단 / 1호관 / 밤]

연구실 한쪽 구석에 노아가 여럿 주운 깡통들이 담겨있다.
각가지 식물들이 담겨있고, 깡통들마다 하나씩 이름들이 써져있다.
작은 주전자로 물을 뿌리는 노아.
오늘 데려온 화분의 이름은 '호프'이다.
'호프'의 떡잎을 어루어 만져보는 노아.
이때 뒤에서 정한이 말을 건넨다.

#UTOPIA

정한 이번엔 이름이 뭐야?

노아는 뒤를 돌아 정한을 바라본다.
정한이 묻자 노아는 화분을 들어 정한에게 보여준다.
' Hope '

정한 호프? 희망?

노아가 꾸러놓은 화분들은 다 여러 단어들로 적혀있다.
정한의 말에 대답하며 화분을 내려놓는 노아.

노아 이상해요?

화분이 있던 곳엔 여럿의 화분들이 각자 이름들이 써져있다.
다양한 영어 이름과 한국어로 된 이름, 일본어로 되어있는 이름, 라틴어로 되어있는 이름 등
여러 언어로 써져있는 화분의 이름들.

정한 아니?

정한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정한 근데, 잘 기를 수 있어?

노아 그냥... 앞으로 좋은 세상을 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데려온거예요.

화분을 어루어 만지며 얘기하는 노아.
그런 노아를 가만히 쳐다보는 정한은 얘기한다.

정한 개들은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클걸?

노아는 정한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미소 짓는 노아.
화분에 휘갈겨 써져 있는 'Hope'

S#10 [폐건물 안 / 한려대학교 / 낮]

권총을 들고 안을 수색하는 노아.
긴장이 되어 식은땀까지 흐르는 노아는 총을 꼭 쥐고서 주변을 둘러본다.
밝은 낮이지만 건물 안이 어두운 걸 고려하여 손전등을 쥐고 있는 노아.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본다.

#UTOPIA

그 때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고 벽 뒤로 숨는 노아.
누군가 오래전 머물다가 사라진 흔적이었지만, 긴장을 놓지 않고 확인을 한다.
다 타버려 굳어버린 양초와 먼지 쌓여 잿빛인 음식봉지와 통조림.
그리고 헤진 옷과 침낭과 이불, 노숙자의 구역과는 비교 못 할 정도의 처참한 모습.
노아는 그걸 보고 안심한 듯 총을 내리고 숨을 돌린다.

사람의 흔적을 바라보다가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을 보고 다가가는 노아.
그 사진은 이미 빛 바래져 있었지만, 옛 누군가의 가족사진과, 애인사진, 그리고 아이의 독사진 등,
여러 가족의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사진들을 뺀히 쳐다보는 노아.

S#11 [폐건물 안 / 한려대학교 / 밤]

모닥불이 피워져있고, 그 위에는 그릴과 통조림이 올려져있다.
이미 식사를 마친 듯한 모습. 통조림은 비워져 있고, 모닥불 타는 소리만 들린다.
노아는 아까 낮에 보았던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다.
사진들을 뺀히 쳐다보던 노아는 한 장, 한 장 모닥불 속에 집어넣는다.
서서히 타들어가는 사진들.
타들어가는 사진들을 무섭게 노려보는 노아.

S#12 [폐건물 안 / 한려대학교 / 밤]

붉게 빛나는 잿더미의 숲.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서서히 눈을 뜨는 노아.
그때 확실하게 들려오는 발소리. 놀라 자리에 일어나는 노아.

노아는 권총을 장전한다. 주변을 빠르게 두리번거리며 총을 겨냥 경계 자세를 취하는 노아.
살금살금 움직이는 노아. 발자국 소리 하나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있는 상태이다.
천천히 건물을 둘러보는 노아. 그때 다른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는 노아.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총을 겨누는 노아.
총을 겨누는 노아의 모습에 놀라 손을 드는 남자.
남자는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온다. 노아는 남자를 천천히 훑어본다.
낮선 복장과 오른쪽 팔뚝에 없는 '유토피아 마크'. 노아는 남자를 노려본다.
남자는 손을 든 채 천천히 노아에게 말을 건넨다.

민호 안...안녕하세요.

#UTOPIA

계속해서 노력하는 노아.

민호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저.. 죄송해요 잘 곳을 찾고있었는데..

노아는 몸에 힘이 점점 풀려 총을 서서히 내린다.

S#13 [폐건물 안 / 한려대학교 / 새벽]

통조림을 허겁지겁 먹는 민호.
그런 민호의 모습을 쳐다보는 노아.
입에 한가득 넣고 게걸스럽게 먹는 민호.
목이 메이는지 물도 마신다.

노아 그것만 먹고 가세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채 매정하게 말하는 노아.
민호는 노아를 쳐다본다. 입에 한가득 있는 음식을 삼키고 말하는 민호.

민호 저.. 정말..죄송한데요..
오늘 밤만 지내면 안될까요?

어이없어 실소가 나오는 노아.

노아 어디 가는중이었는데요?

민호는 먹던 통조림을 내려놓고 입을 한번 닦는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민호는, 노아에게 빨간색 천을 하나 건넨다.

민호 이걸 달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노아는 민호를 쳐다보며 천을 펼쳐본다.
천은 피가 묻어있고, 유토피아 마크가 짙게 그려져 있었다.
노아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다. 민호를 쳐다보는 노아는 묻는다.
민호는 노아의 반응을 보며 통조림을 든다.

노아 이게 뭔데요?

민호 어.. 듣기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래요.
지상에서 살수 있는 땅도 있고, 음식도 있고..
사람들은 거기를 유토피아라고 부르더라구요.

#UTOPIA

노아는 민호를 빤히 쳐다본다.

노아 ...어디서 왔길래 그런 곳을 찾아요?

민호는 살짝 멍청하다가 어쩔수 없단 듯이 대답한다.

민호 사람 사는데가 다 똑같죠 뭐.

통조림을 휘저으며 얘기하는 민호.

민호 항상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들 살기위해서...어쩔수없어서 그러는거겠지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이젠 못하겠더라고요.

말을 마치자 통조림을 한입먹는다.

노아 결국 모두가 자초한 일인데요 뭘.

노아의 작은 말소리에 못들은 듯 민호는 다시 되묻는다.

민호 ...네?

노아 아니에요.

생긋 웃어보이는 노아.

민호도 어색한 듯 따라 웃어보인다.

S#14 [폐건물 안 / 한려대학교 / 새벽]

곤히 잠든 민호.

꺼져가는 모닥불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진 노아.

자신의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창을 바라본다.

뒤를 돌아보며 잠든 민호를 한번 쳐다본다. 깊은 생각에 빠진 노아.

동이 트는 하늘을 쳐다본다.

S#15 [폐건물 / 한려대학교 / 아침]

잠에서 깨어난 민호.

#UTOPIA

슬슬 눈을 비비며 뜬다. 본인 몸에 덮어져 있는 천을 걷어내고
자리에 일어나는 민호.

복도를 거닐며 노아를 찾아 다닌다.
두리번 거린다.

S#16 [폐건물 옥상 / 한려대학교 / 아침]

망원경으로 창 밖을 둘러보고 있는 노아.
노아에게 다가오는 민호.
민호는 쭈뼛쭈뼛 노아에게 말한다.

민호 어제.. 잘 먹었어요. 통조림.

노아는 계속해서 말없이 망원경으로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다.
대답없는 노아에 살짝 빨쭈해진 듯 뒤를 돌아 가려하는데 노아가 말을 건다.

노아 이제 어디로 가요?

뒤를 돌아 노아를 보며 다시 다가오는 민호.

민호 어..그 사람들 다시 찾으러 다녀야죠.

노아는 망원경을 내린다. 민호를 한번 쳐다보며 말하는 노아.

노아 그렇게 직접 찾으러 다닐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요?

머리를 긁적이는 민호.

민호 아노 뭐.. 새로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요.
사람답게 살고싶기도 하고...

멋쩍은듯 미소지어보이는 민호.
그런 민호를 쳐다보는 노아.

민호 그쪽은 좋으신분이잖아요.

노아 ...내가?

민호 그럼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세상에 선뜻 먹을 것까지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줄 아세요?
안죽이면 다행이지..

#UTOPIA

창을 바라보는 노아는 살짝 미소지어보였다.

민호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구해준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노아를 쳐다보는 민호.

민호 그래서 찾아다니는거예요.

서로를 쳐다보는 둘.
이내 민망한 듯 민호는 말을 돌린다.

민호 이제 가봐야겠어요.

떠날 채비는 하는 민호.
노아는 채비를 하러 가는 민호를 쳐다보다가 다시 창문을 쳐다본다.

S#17 [밖 / 은파리 / 낮]

멀리서 걸어오는 둘.
서서히 멈춰서서 서로를 마주본다.
다른방향을 가리키며 말하는 민호.

민호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민호를 쳐다보는 노아.

민호 무슨일 하시는분인진 잘 모르겠지만..
그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미소지어보이는 민호.
노아도 살짝 웃음지어보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민호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한다.

민호 갈게요.

뒤를 돌아 가는 민호.
그의 뒷모습을 보는 노아.
뻗히 쳐다보다가 뒤를 돌아 제 갈길을 가는 노아.

#UTOPIA

S#18 [연구실-테이블 / 1호관 / 밤]

정한 정말 그렇게 말했어?

노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정한은 크게 웃는다.

노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정한 그래서, 어떻게 했어?

노아를 쳐다보는 정한.
노아도 정한을 쳐다본다.

정한 살려줬어?

미소 짓고 있는 정한이었지만 위협적인 정한의 어투.

노아 ...제가 알아서 하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노아의 모습에 웃는 정한.

정한 그래. 뭐.
그건 그렇고, 장치 하나가 불안정해. 누가 해제하려고 했어.
확인해 봐.

컴퓨터 쪽을 가리키며 말하는 정한.
노아는 정한을 쳐다보다 연구실 컴퓨터로 향한다.
노아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뜯으며 컴퓨터를 본다.
컴퓨터에는 구역의 지도가 띄워졌고, 'B-C'구역에 '위험'이라는 경고표시가 되어 있다.
정한은 노아를 쳐다본다.

정한 잘못 건드리면 터져.

S#19 [황무지-(B-D)구역 / 새만금 / 낮]

유토피아 마크가 그려진 두 남자가 장치를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다.
어딘가에 무전을 하기 시작하는 남자.

남자1 네. 발견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고...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무전이 끝난 남자1. 남자2는 남자1에게 무언갈 말한다.

#UTOPIA

그때 남자의 머리에 겨눠지는 저격 스코프.
남자1이 갑자기 쓰러진다. 이후 들리는 총소리.
남자2는 놀라 총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총을 겨누지만,
이윽고 똑같이 머리에 총을 맞아 쓰러져 버린다.

S#20 [황무지-(B-D)구역 / 새만금 / 낮]

쓰러진 남자들의 시체를 옆으로 치우고 방사능 장치를 확인하는 노아.
방독면을 쓴 채로 시계를 작동하여 기기의 상태를 확인한다.
잠시 위험상태에 빠졌던 기기는 곧 안정에 접어들어 다시 방사능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방사능 알람음이 없어지자 방독면을 벗는 노아.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선 다른 곳으로 향한다.

S#21 [황무지 -(B-C)구역 가는 길 / 새만금 / 낮]

빠르게 걸음을 하는 노아.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자리에 멈춰서는 노아.
그때, 노아의 앞에서 발사되는 핵폭탄이 보여진다.
아주 멀리서 발사음이 미세하게 들려온다.
하늘로 발사되는 핵폭탄을 보며 망연자실한 노아.
그때 화가 난 듯 자신이 들고 있던 방독면을 바닥에 내던진다.
뒤로 돌아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노아.
흙먼지에 묻혀 버려진 방독면.

S#22 [황무지 / 새만금 / 초저녁]

터벅터벅 걸어오는 노아.
매우 지친 표정으로 무미건조하게 걸어온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

S#23 [연구실-칠판 / 1호관 / 저녁]

아크릴 칠판을 쳐다보는 노아.
노아는 여러 표시가 되어있는 지도를 쪽 훑어본다.
얼마 전 터져버린 'B-C'구역은 빨강색 X 표시가 되어있었다.
빨히 칠판을 쳐다보던 노아는 펜을 꺼내 들어 무언가를 쓰기 시작한다.
다 쓴 노아는 자리를 떠난다. 덩그러니 칠판만 보여진다.
모든 구역에 빨간색 핀이 꽂혀 있고, 노아의 연구소로 추정되는 곳으로 연결되어있다.
그리고 연결되어있는 연구소 밑에는 'D-1'라고 써져 있다.

S#24 [연구실-화단 / 1호관 / 저녁]

따스한하고 어두운 빛이 들어오는 노아의 화단.
조금씩 물을 주고 있는 노아의 표정은 매우 공허해 보인다.
물을 주다가 노아의 팔꿈치에 걸려 화분 하나가 떨어진다.
노아는 놀라 화분을 얼른 줍는다.

흩어진 흙과 자라다 만 식물이 처참하게 떨어져있다.
노아는 천천히 화분을 들어 이름을 확인해보았다.

'HOPE'

당황한 노아는 이내 슬픈 표정을 짓는다.
옆에는 정한이 앉아있다. 말을 건네는 정한.

정한 조심 좀 하지.

노아는 정한을 천천히 쳐다본다.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는 노아.

정한 괜찮아?
노아 ...그럼요.

정한은 스크린을 보며 얘기한다.
노아는 화분을 들고 테이블에 앉는다.
화분을 내려놓는 노아.

정한 내일이면 전부 끝인거야?
노아 네. 오래걸렸죠.

#UTOPIA

고개를 끄덕이는 정한.
살짝 미소지어 보이는 노아.
정한도 그런 노아를 쳐다 보고선 미소짓는다.
다시 스크린을 보며 말하는 정한.

정한 마지막으로 물을께.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노아는 정한의 말에 하염없이 정한을 바라본다.

S#25 [연구실-침실 / 1호관 / 밤]

밤이 되었고, 노아는 자려고 누워있다.
창에선 어두운 빛이 들어오고 있고, 스탠드에 불이 켜져있다.
노아는 잠 못 들고 있다. 뒤척거리는 노아.
스탠드의 불을 껐다 켜다 하는 노아. 생각에 깊이 빠져간다.

S#26 [초원 / 은파리 / 낮]

화분을 든 채 먼 곳을 바라보는 노아.
'Future'라고 써져있는 화분.

황폐한 바닥에 심어지는 'Future'
물이 후두둑 떨어진다.
노아가 물병에서 물을 식물에게 뿌리는 중이다.
화분을 보며 미소 짓는 노아.

S#27 [황무지 / 새만금 / 초저녁]

터벅터벅 걸어가는 노아의 등에서 절그럭 거리는 총.
방공호를 향해 걷는 노아의 발. 걸던 발은 천천히 멈춰선다.
노아가 바라보는 곳에는 유토피아 마크가 새겨진 무리 가운데에
한 여자가 서있었다.
서로를 응시하는 여자와 노아.

#UTOPIA

노아에게 인사를 건네는 여자.

리더 안녕하세요.

노아는 여자의 오른쪽 팔뚝에 유토피아 마크가 있는 걸 확인한다.
주변에 있는 무리들도 훑어보는 노아.
무리들은 노아를 보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총을 겨누고 있진 않지만 언제나 쏠 수 있을 정도로 손을 짝 쥐고 있는 모습.
노아도 허리춤에 있던 권총에 손을 대며 긴장한 모습을 보인다.
여자는 노아에게 말한다.

리더 드디어 찾았네요.

노아는 리더를 뺨히 쳐다본다.

서로를 응시하는 무리와 노아.

S#28 [연구실-거실테이블 / 1호관 / 초저녁]

화분이 무수히 많았던 자리엔 화분들이 조금 치워졌고, 떨어진 흙과 시든 화분밖에 없다.
빛에 그림자 져있는 화분들이 보인다.
노아와 리더는 스크린을 배경으로 연구실 가운데의 식탁에 앉아있다.
주변을 둘러보는 리더. 특히 스크린에 제일 오래 시선이 가있다.
스크린에는 푸른 자연이 보였고, 리더는 혼잣말로 얘기한다.

리더 대단하네요..

노아는 리더를 뺨히 쳐다본다.
테이블에는 노아의 권총이 올려져 있었다.

리더 땅 밑에 이런 곳이 있다니..

노아 당신들이 건든 거 맞죠.

노아의 말에 리더는 노아를 쳐다본다.

리더 네. 당신이 설치한 장치를 해체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고였습니다.

노아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건들어?

이를 악물고 얘기하는 노아.
아무 말 없는 리더, 노아를 노려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노아의 앞으로 던지는 리더.

사진들은 노아가 죽인 무리들의 사진들이었다. 사진들은 피가 묻어 더러웠고 찢어져있었다.

리더 21명, 당신이 죽인 사람이 벌써 21명이나 됩니다.
그들 모두 가족이 있었고 이런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 리더를 아무 말 없이 쳐다본다.

리더 하지만 당신을 막으려다 모두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며칠 전 그 폭탄이 터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설치한 그 폭탄 때문이에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는 둘.

리더 결국 저희는 실패했고, 당신을 막지 못했어요.

리더의 말에 피식 웃는 노아.
실소가 터진 듯 웃기 시작하는 노아. 자리에 일어서서 화분 쪽으로 향한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리더는 원망스러운 듯 쳐다본다.
시들어진 화분을 가져오는 노아. 리더의 앞에 둔다.
화분에는 'Human'이라고 적혀있었다.

노아 지구의 주인은 원래 이들이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인류는 이들의 경고 또한 싸그리 무시한 채 주인행세를 해왔어요.

시든 식물을 만지며 쳐다보던 노아는 리더를 쳐다보며 말한다.

노아 참 웃기지 않아요? 결국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지구의 주인을 운운하며 모두를 파괴하는 지경까지 이른 게?
저는 그런 인류가 혐오스러워요. (리더를 노려보며) 누가 누구를 구해?

얘기를 하며 감정이 격해진 노아는 소리를 친다.

노아 인류 최악의 잔재인 이 핵폭탄들과 우리가 전부 없어져 줘야!
...모든 생명에게 더 좋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어 멋진 곳에서 떠나야 해요.

머리 아픈 듯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는 리더.
리더의 눈에선 눈물이 한 두 방울 떨어진다.
리더는 노아를 보며 말한다.

리더 당신의 폐시미즘적 사고로, 저희의 생명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품에 있던 총을 들어 노아에게 총을 겨누는 리더.
따라서 총을 집어 리더에게 겨누는 노아.

#UTOPIA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둘.

리더 살아가지 말아야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어떤 존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노아를 향해 울부짖는 리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노아.

리더 저희 모두는 살아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마지막 말로 눈물이 흐르는 리더.
노아는 그런 리더를 보고선 천천히 미소 짓는다.

S#29 [연구실-침실 / 1호관 / 아침]

아크릴 칠판에는 피가 뿌려져 있다. 총탄을 맞아 피가 튄 흔적이다.
리더이 쥐고 있던 총에도 피가 흩뿌려져 있다.
머리에 총을 맞아 구멍에 피가 흘러지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리더.
이미 숨은 끊어져서 싸늘하다.

침대에 등을 기대 스크린을 쳐다보는 노아의 얼굴엔 피가 몇 방울 튀겨져 있다.
하염없이 스크린을 쳐다보는 노아. 노아의 오른쪽 팔에는 총을 맞은 듯 피가 흐르고 있었다.
시계를 몇 번 조작하더니 스크린 중앙에 10분의 카운트가 생겼다.

정한 정말 후회 안할 자신 있어?

스크린을 빨리 쳐다보던 노아는 옆에서 말을 거는 정한을 쳐다본다.
정한은 노아를 보지 않은 채 스크린을 보며 말하고 있었다.
노아는 정한을 한번 쳐다보고선 다시 스크린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정한 결국 다 끝났네.

피가 더 흐르는 노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노아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고,
입에선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정한 어때 기분이?

노아는 정한의 말에 웃는다.

노아 그저 그래요. 결국 전 못 보잖아요.
(스크린을 쳐다보며)...보고 싶었는데..

#UTOPIA

정한 ..그래..

노아는 마지막 말을 하고선 숨이 거칠어졌다.
노아의 시선은 스크린을 향했고, 스크린에는 푸른 자연이 보였다.

노아 고마웠어요.

정한은 노아를 쳐다본다. 노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
정한은 다시 스크린을 쳐다본다. 들고 있던 커피를 한 모금 다시 마시며
줄어드는 카운트를 보는 정한.

정한 고생했어.

어느새 10초가 남은 카운트다운.
노아의 눈은 얼마 남지 않은 카운트다운을 향하고 있다.

S#30 [황무지 / 새만금 / 아침]

발사되는 무수히 많은 핵미사일들은 장관을 이루고 있다.
리더와 같이 왔던 무리들은 발사되는 핵미사일들을 보고 충을 떨군다.
얼굴을 감싸며 절규하는 사람.
울기 시작하는 사람. 체념하는 사람.

땅에 박혀있는 식물 'Hope'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E# [20년전 연구실 / 1호관 / 낮]

<정한과 노아는 다정하게 얘기한다.>